

집 '중'기 '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을 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에게 듣는다 _ 문화일반

넓고 깊은 '지역문화'의 일원으로

culture | art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은 구성 이후 당면한 위원회 구조 안정화 및 위원회 전환의 세부적인 완성, 그리고 2007년 문예진흥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커다란 과제가 중심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문화의 입장에서는 균형발전과 문화민주주의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 및 영역을 확대하되, 지역문화의 가치 부여와 부양의 문제를 고민의 중심으로 올려놓고 사고할 필요가 있다.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문화일반
- 극단상상극회, 극단놀이패열린터 대표 역임
- 충북문화운동연합 의장 (93-94)
- (사)충북민예총 사무처장 (94-00, 03-현재)

'지역문화'라는 용어는 수도권과 각 지역을 하나의 대등한 관계로 설정하고 '지방'이란 종속적 용어를 '지역'이라는 관계적 용어로 바꿔 부름으로써 수도권과 지역의 문화적인 격차를 극복하고 모든 지역이 문화로 대등해지기 위하여 사용된 용어이다. 지역의 입장에서 '문화예술 진흥'과 같은 담론적인 공익성은 다양한 각 지역이라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현실과 이상 사이를 매개할 것인가 하는 점으로 요약되어질 것이며 이것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전과 목표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문예진흥기금과의 역할분담 필요

1기 예술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은 구성 이후 당면한 위원회 구조 안정화 및 위원회 전환의 세부적인 완성, 그리고 2007년 문예진흥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커다란 과제가 중심이 될 것이다. 이미 2006년 문예진흥기금의 운용은 위원회결성 이전에 완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2006년 문예진흥기금은 당초의 계획대로 집행될 것이다. 2006년 문예진흥기금의 지원과정에서는 그동안 수혜를 받는 현장에서 크고 작은 불만이 있던 지원제도를 현행 테두리 속에서 대응하여 얼마나 보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될 것이다.

예술위원회의 가장 큰 과제인 목표와 비전을 담은 기금 지원제도의 개선은 2007년 문예진흥기금의 제도 개선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현실여건은 오히려 차분한 준비를 통한 기금지원 제도의 효과적 개선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지역문화의 입장에서는 균형발전과 문화민주주의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 및 영역을 확대하되, 당대문화의 주요한 근거지점이라는 지역문화의 가치 부여와 부양의 문제를 고민의 중심으로 올려놓고 사고할 필요가 있다. 예술위원회의 출현이 가져올 구체적인 활동은 광범위한 지원제도 관련 지역협의체구성으로 많은 분들이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지역협의체 완성을 위하여 과도기를 주도하고 결과적으로 지역참여 활성화의 문제와 지역분권 자율화 확보라는 측면의 제도 정착에 기여하는 것에 일정한 할 일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참여의 활

성화, 다양한 지원제도 기구들의 지역공동 대응과 지역 간의 편차는 있으나 대부분 영세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문예진흥기금의 활성화, 현행 제도 내에서 지역에 근거한 수많은 분들의 수혜 확대와 광역자치단체로 이양 되는 기금의 확대와 또 광역으로 이전된 기금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 등, 만만치 않은 주요한 논의 지점이 형성될 것이다. 여기에는 지금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과의 공조가 필요하며 각 지역의 문예진흥이라는 같은 목표를 담고 있는 지역문예진흥기금과의 역할 분담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지역문화 네트워크의 구조 마련과 활성화

또한 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문화의 근본적인 제고의 방편으로 지적된 바 있는 지역문화 네트워크의 구조 마련 및 활성화의 문제이다. 이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반적으로 지역문화를 부양하기 위한 예술위원회의 접목지점은 문화예술진흥법 제 23조에 열거된 예술위원회와 지방예술위원회 및 재단법인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각 지역에 고립 분산적으로 흩어져 있는 문화예술 지원 기구 간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관련 지원기구들의 새로운 등장이 예상되는바 이들 기구 간 상호 역할 분담의 문제와 소통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네트워킹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예술위원회는 이들 기구 간 조정·협력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될 가능성이 크다. 예술위원회 고유의 지원영역 및 역할 정립을 위하여 정부, 자체단체, 각 지역예술위원회 및 지역재단 등과의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관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받아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지역문화와 관련한 소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1기 예술위원회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많은 공을 들여야 할 부분이 될 것이다.

지역문화 종사자로 여러 해 동안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지역문화야말로 각기 강한 개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며 연대의 필요성을 보는 지점과 달리 설득과

공격적인 공감대 형성이라는 실천적인 방식이 동원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이었다.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심 자체가 단선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존중과 상호 신뢰야말로 지역문화를 전 지역 차원에서 공동대응하여 쟁점을 풀어가는 '지역적 방식'이 된다는 점이었다. 결국 '연대'라는 말은 그 말이 아무리 세련된 것이라고 하여도 힘없는 이가 선택하는 방식이며 교류란 결국 '타인의 장점을 통해 나의 단점을 보는 일'일 뿐이다.

시는 사람으로 따지면 수도권에 비해 두 배나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 단순한 인구대비로 위원회의 삼분지이 짙은 지역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해보았다. 배경에는 지역문화라는 어려운 여건을 편들어 줄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냐는 피해의식이 작동했을 것이다. 그러나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 분들을 논의테이블에서 만나보니 그분들의 면면이 '지역문화'라는 문화예술의 중요한 지점에 대해 이해하는 폭의 깊음이 나보다도 훨씬 앞서 있음에 안도하였다. 지역문화는 결국 몇 사람의 인자로 대표될 수는 없다. '한 시대의 문화는 그 시대 다양한 변방에 꽃피운 지역문화의 총화'를 이르는 말에 다름 아니며 넓고 폭이 깊은 지역문화 속에서는 누구나 지역문화의 일원일 뿐이다.

